

## 기도 생활에 관한 온전케 하는 훈련

캐나다 온타리오 브램프톤 교회

2006년 12월 3일

메시지 1

새로운 부흥

성경: 합 3:2, 2:1, 잠 4:18, 호 6:1-3, 율 2:35, 3:18, 암 9:11, 학 2:7, 애 3:22-23, 롬8:19-21

**I. 이 부흥의 문제는 소선지서들의 ‘찝질’ 속에 있는 ‘핵심’이다.**

**II.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합 3:2.**

**III.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과 온 피조물과의 관계**

- A.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에는 부흥되기를 열망하는 것이 언제나 있어왔다.
- B. 사람의 타락 이후로 온 피조물 가운데에는 부흥을 열망하는 것이 있어왔다.
- C. 어느 곳이나 있는 부흥의 필요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질 수 있다.
- D. 제 삼일에 일어난 분이신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시다—고전 14:4.
- E. 온 우주를 위해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는 제 삼일의 실제이시다—요11:25.
- F. 부흥을 체험하는 길은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우리의 죄들과 실패들과 어두움을 자백하는 것이다.
  - 1. 하박국은 기도의 사람이다.
  - 2.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갖는 것이다.

**IV. 부흥이 없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실행할 길이 없을 것이다.**

**V. 우리 믿는이들은 매일 아침에 부흥을 갖도록 해돋이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매일의 부흥을 체험한다면 살아 있게 될 것이다.**

- A.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잠 4:18.
- B.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호 6:1-3
- C.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애 3:22-23.
- D.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날개에 치료함이 있는 해가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잘 먹은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2
- E.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시 84:11.

F.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삿 5:31.

VI. 매일의 부흥 외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애 전체에 걸쳐 많은 부흥들을 체험해야 한다.

VII. 우리는 부흥을 갖도록 반드시 완결된 영의 쏟아 부음이 있어야 한다.

A.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을 2:28.

B. 우리는 바람과 구름과 불과 합금의 부흥을 끊임없이 체험해야 한다—겔 1:4.

VIII. 부흥의 생활

A.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스 13:1.

B.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 대리라”—을 3:18

C.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암 9:13

IX. 아침 부흥을 통하여 우리는 메뚜기들이 먹어버린 햇수를 되찾을 것이다—을 2:25.

X. 부흥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움직임 가져오며, 결국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완결된다.

A.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B. “사면의 열국이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을 3:11

C.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암 9:11

D.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이 갈망하는 바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학 2:7

XI.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합 2:1

A.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겔 33:7

B.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스 12:10

사역의 말씀 발췌

### 부흥에 대한 우주적인 열망

소선지서에 제시된 부흥은 가족과 교회와 열국과 온 인류와 심지어 온 우주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호세아 6장 2절에 기록된 이틀간의 황폐함 가운

데 있다.

사람의 타락 이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계속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이것에 관하여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한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썩어짐과 노예 됨과 사망이 온 피조물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날 모든 것이 쇠하고 있으며 썩어짐의 노예 됨 아래 있다. 이러한 노예 됨 아래 있는 만물은 부흥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 그리스도—제 삼일의 실재

사람의 타락은 썩어짐이라는 결과를 낳았는데, 썩어짐에는 노예 됨이 있다. 이러한 썩어짐과 노예 됨으로 인해 어디에나 부흥, 곧 회복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제 삼일에 부활하셨으며, 부활 안에서 영이신 그리스도인 그분은 제 삼일의 실재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온 피조물이 열망하는 부흥의 요소이시다. 썩어짐과 황폐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만 삼켜질 수 있다.

믿는이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부흥되기를 열망한다. 곧 새로운 시작을 갖기를 열망한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무언가를 원한다.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는 인자(因子)이시다. 제 삼일에 일어나신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시다. 온 우주와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는 제 삼일의 실재이시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부활이신 그분 자신을 영접하였다(요 11:25). 그분을 영접하자마자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가졌다. 그러한 새로운 시작은 일종의 부흥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다시 황폐한 상태로 떨어졌으며, 또 다른 부흥이 필요했다. 이러한 황폐와 부흥, 부흥과 황폐의 순환이 거듭거듭 반복되어 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들과 실패들과 어두움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들의 황폐함으로부터 제 삼일의 부활로 이끌리게 된다. 우리가 황폐함 가운데 있을 때 마다 그러한 부흥이 필요하다. 우리는 제 삼일로 가야하며, 제 삼일은 바로 부흥의 실재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최종 완성된,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의 부어지심이 있으며, 우리 영은 분발됨으로 반응한다. (소선지서 라이프-스터디, 메시지 35)

###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그분의 긍휼은 무궁함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말한다. 나는, 예레미야가 아침에 주님을 접촉하면서 그의 백성의 모든 괴로움을 회고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예레미야는 이 괴로움을 회고하고 있었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유감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이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얼마만

큼 징벌하셨든지 간에, 그들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으며, 예레미야와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 그와 더불어 함께 남아 있는 다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레미야는, “그분의 자비가 무궁하시므로” (22下) 라고 찬양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나지 않았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존했다.

여호와와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23上)라고 말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주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접촉했음을 가리킨다. 그가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받은 것은 바로 주님과와의 접촉을 통해서였다.

23 절 하반절에서 예레미야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선포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말씀을 가리키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또한 그분의 언약과 관계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삭과 야곱에게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데 신실하셔야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데 신실하셨다. (예레미야 애가 라이프 스테디, 메시지 2)

###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해와 같음

사사기 5장 31절 하반절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라고 말한다. 해가 힘 있게 돋는다는 것은 밝고, 환하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살림과 결심과 솟아오르는 태양의 비침이 필요하다. 만일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승리를 누릴 것이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사랑스런 모든 성도들이 큰 살림과 큰 결심을 가져 주님을 사랑함으로 밝게 빛나서 그들 모두가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기를 바란다. (사사기 라이프 스테디, 메시지 4)

###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킴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점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11-12절). 아모스의 이 부분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였을 때 야고보에 의해 인용되었다.

아모스서의 이 예언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참 다윗이 되실 것임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실 때 그분은 참 다윗이 되시어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왕가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이 모든 열국이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질, 즉 모든 열국이 하나님께 속하게 될 천년왕국일 것이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 믿는이들에게, 회복의 때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므로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으로 마음 상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이것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를 회복하기 위해 그분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복원하실 것이다. 그 때에 모든 열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모스서에 있는 커다란 향목이다. (아모스 라이프 스테디, 메시지

3)

### **파수꾼을 세우심**

생명에 의한 주님의 회복에서 그분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이다. 파수꾼은 무엇인가? 파수꾼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발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께 돌아서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큰 파수꾼으로 보내셨던 침례자 요한의 경우도 그 원칙은 동일하다.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 그는 회개의 나팔을 불었다. 그는 “회개하라!”고 외쳤다(마 3:1-2).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했을 때도 원칙적으로 같은 것을 외친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분의 갈망은 그들이 돌아오므로 사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 에스겔 33장 11절은,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라고 말한다. (에스겔 라이프 스테디, 메시지 16)

###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심**

스가랴 12장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 주셨을 때, 삼천 명이 구원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혜의 영을 부어 주실 때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은혜의 영은 달콤한 용어이며,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능력의 영과 대조된다. 우리는 능력의 영이요 은혜의 영이신 그 영을 모두 체험해야 한다. 능력의 영은 우리를 강건케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은혜의 영은 우리를 삼일 하나님에 대한 누림 안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을 통한 신성한 능력에 참여함이 있었지만, 삼일 하나님에 대한 누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사도행전 2장의 은혜 시대, 즉 교회 시대 초기에는 그 영이 주로 능력의 영이었다. 그러나 스가랴 12장에서 은혜 시대를 마감하는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 영이 주로 삼일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위해 은혜의 영이 되실 것이다. (스가랴 라이프 스테디, 메시지 13)